가을장마에 이어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으로 추석 대목을 앞둔 과수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5일 나주시 왕곡면에서 배 과수농가 주인 박명학씨가 여물어가고 있는 배를 근심스런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임정옥기자 joi5605@srb.co.kr

"수확 기쁨은 없고 남는 건 걱정뿐"

르포 **태풍에 긴장, 나주배 농가**

이른 추석·가을 장마·태풍 삼중고
잦은 비, 상품 가치 떨어질까 우려
방지포 씌우는 일 밖에 할 수 없어
낙과 피해 뻔한데…우울한 대목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일년을 애썼는데 수확을 눈앞에 두고 큰 태풍이 온다니 착잡하기 그지없네요. 가을장마에 열매 태반이 덜익은 데다 당도도 제대로 오르지 않은 상태예요. 추석 물량이나 맞출 수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추석을 앞두고 명절특수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야 할 나주지역 배 재배 농민들의 얼굴에 시름이 가득하다. 현재 시기상 수확기에 해당하지만 가을 초입부터 내리기 시작한 잦은 비로 배들이 덜익은 상황인데다 예년에 비해 앞당겨진 추석연휴에 태풍소식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5일 오전 찾은 나주시 왕곡면의 한 배재배 농가. 작업모를 깊게 눌러 쓴 박명학(52)씨가 배나무 사이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박씨는 이곳에서 20여년째 배 농사를 짓고 있다. 박씨가 하고 있는 작업은 수확을 앞두고 잘 여물어 가고 있는 열매 하나하나에 방지포를 씌우는 것이었다. 예년 같으면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즐거워야 할 작업이었다. 하지만 이날 박씨의 얼굴에는 즐거움보다 근심이 가득해 보였다.

"태풍이 올라온다니 마음이 급하네요. 태풍도 그냥 태풍이 아니라 강한 태풍이라잖아요. 세력이 점점 세지고 있어 더 걱정입니다. 비켜가면 좋을텐데." 제13호 태풍 '링링' 북상 소식도 소식이지만, 나주가 이번 태풍의 위험반원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씨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보였다. 박씨는 "농사가 하늘의 뜻에 달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참 난감하다"며 "부디 이번 태풍으로 인한 과수농가의 피해가 적길 바라는 마음 뿐이다"고 말했다.

박씨에 따르면 배 열매는 8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빠른 속도로 익기 시작한다. 열매의 몸집이 커지고 당도와 식감도 이 시기에 무르익는다. 이에따라 통상 배 출하시기는 9월 초~중순이다. 그나마 목돈을 만져보는 시기도 이 때쯤이다. 1년 농사의 보상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가을장마에 배들이 상품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데 눈앞에 다가온 추석 대목 때문에 기다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씨는 "한동안 내렸던 비와 함께 이번 주말 태풍 소식도 있어 정말 큰 걱정이다"며 "예년의 경우 조건이 잘 맞으면 추석 전까지 1만여 상자를 출하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겨우 2천~3천 상자만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금천면에서 배농가를 운영중인 정동현(48)씨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정씨는 "우리 농가는 다행히 이번 출하량을 얼추 맞출 수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덜익은 배들이 나무에 많다"며 "이번 태풍으로 큰 낙과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피해는 추석 물량은 물론 내년 설 물량과 시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가을 태풍은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 과거 불어닥쳤던 볼라벤의 경우에도 저 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이번 태풍으로 인한 낙과 피해가 아주 클 것 같다. 태풍은 낙과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 상처를 입히고 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 눈 앞의 피해도 크지만 한번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향후 2~3년까지 생산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한편 한반도를 향해 북상중인 제13호 태풍 '링링'은 점차 빠른 속도로 이동, 6일 밤부터 광주·전남지방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80대 뺑소니 사망…명절 앞두고 날벼락

경찰, 20·70대 운전자 조사중
보행자 연달아 차에 치여 숨져

추석을 앞두고 80대 노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고 도주한 A(28)씨와 사고 직후 또다시 피해자를 차량으로 친 B(7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이면도로 삼거리 인근에서 주민 C(84)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자신의 승합차 옆면에 부딪혀 쓰러진 C씨를 보고도 그대로 달아났다.

곧 이어 B씨가 차량을 몰던 중 앞서 발생한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C씨를 또다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는 C씨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C씨는 결국 사고 5시간여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도로변에 서 있던 C씨를 들이받은 사실을 몰랐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두사람이 차로 피해자를 쳤다는 사실만 파악됐을 뿐, 두 건의 사고 중 어느 사고가 C씨를 직접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 조사중이다"며 "국과수의 부검과 블랙박스 분석 등 결과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와 구속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어머니 살해 20대 2심도 징역 20년

법원 "원심 형량 합리적인 범위"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8시56분께 전남 한 지역 어머니(55) 집에서 어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檢, 금품 살포 조합장 후보 구속기소

당선 대가로 조합원들에 1억원 건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를 앞두고 조합 임원과 조합원에게 거액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가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당선을 위해 조합 임원과 조합원들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돌린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남지역 한 축협조합장 후보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돈을 받아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뿌린 혐의로 해당 축협 임원 3명도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원 등 25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조합 임원 3명에게 각각 3천300만원, 2천100만원, 2천500만원을 건네는가 하면 일부 조합원들에게 200만~300만원의 돈을 직접 건넨 혐의다.

조합 임원 3명은 A씨에게 돈을 건네받은 뒤 이를 다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다.

A씨는 당선을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완도 신축 빌라 공사장서 "밀린 임금 달라" 고공농성

완도의 한 빌라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였다.

5일 완도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4분께 건설노동자 A(54)씨가 완도군 완도읍 한 빌라 신축현장 내 50~60m 높이의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매트 등을 설치한 뒤 A씨를 설득했다. 경찰은 현장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완도=조성근기자 chosg11@srb.co.kr

부동산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100
- B형 : 83×50
- C형 : 126×50

SK VIEW SK공인중개사
H. 010-5099-2400
H. 010-9466-3400
농성동 SK VIEW
매매, 전·월세 상/담/환/영
물건 다량 보유
9월 16일 입주가
농성동 SK뷰 단지내 상가 107호 입점
H. 010-8524-3150
농성 탑 공인중개사

사랑방 부동산
MAP+ (맵플러스) OPEN
이젠 지도검색으로 내집마련 할지도!
아파트·오피스텔 매물 검색
초등학교 배정구역 확인
가격변동률 참고
중개사무소 위치
단지별 시세 리뷰 제공

광주 정보량 1위 상가·부동산광고
멀리서 찾지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 압도적인 정보량
✓ 관련 면 단독 게재
✓ 신문 게재시 인터넷+모바일 동시게재
박스광고 문의 ☎ 510-4500
상가·부동산 광고는 역시 사랑방

봉선동 상가 임대·분양
◈ KJ빌딩 신규 파격 임대·분양 ◈
지 하 체육관 / 헬스클럽 스크린 골프 / 기타 업종
1층 모든 업종 가능
2층 전문병원 / 학원 (병원 상담시 특별혜택)
3~6층 병원 / 타업종 가능
상담 문의 H. 010-6705-6267 H. 010-3632-2401

광주 최초 동영상 서비스
아파트 분양정보 찾을 땐 사랑방
광주 최초! 단지 규모와 주변 환경 등 놓쳐서는 안될 주요 정보를 영상 리포트로 확인해 보세요.
국내 최초! 교통, 생활인프라, 교육환경을 360° 드론영상으로 생생하게 경험해보세요.
생생한 현장감! 모델하우스 방문 없이 거실부터 주방까지 집안 곳곳을 생동감 있게 경험해보세요.